

그 사람 지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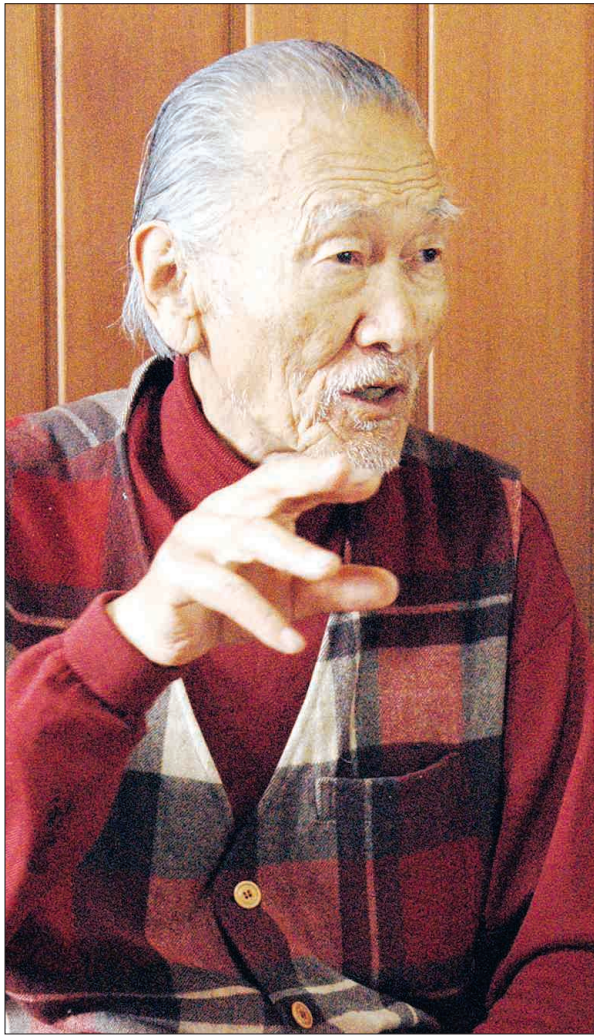
(29) 남종화 거장 아산 조방원 선생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해남 대흥사

# 5·18 뜻 기려 낙관 '五十八日'로 찍기도

“자기 뜻을 그대로 관철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 요즘 세상에 지조를 지킨다는 게 어렵다는 게지” 남종화의 거장 아산(雅山) 조방원(82·곡성군 죽곡면 연화마을) 선생을 만난 날이 마침 스승의 날인 5월15일이었다. 아산은 스승의 날을 맞아 찾아 온 제자들에게 “해서 될 일과 해서 안 될 일이 있지. 자기가 한번 세운 뜻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라며 덕담을 건넸다. 언뜻 보기에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림에 대한 자세와 그림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교하고 있었다. 아산은 여든이 넘는 나이지만 아침 7시30분이면 일어나 녹차를 마신다. 점심 후에는 잠깐 오수를 즐긴다. 몇 년 전만 해도 시간이 나는 대로 붓을 잡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0~20분도 그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년 이상을 앓아온 당뇨에 시력조차 약해져 작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초여름의 날씨에도 얇은 스웨터와 조끼를 껴 입을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다. 시력이 약해 그림을 정확히 그리기 보다는 가늠으로 그리는데 더디고 눈이 시려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1996년 제자들 구성된 '목노회'의 전시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한 조방원(맨 뒷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화백.

“요즘 지조 지키는 게 쉽지 않지만 한번 세운 뜻 굽히지 않는게 중요”

“언제부터가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이젠 갈 데가 한 군데 있지”라며 가볍게 웃는 그에게서 쓸쓸함 보다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순응하는 자연이 엿보였다. 아산이 화가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예상과 달리 명창 이동백과 임방울의 소리, 최승희의 무용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한다. 17세의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이었던 그는 관소리와 춤을 통해 자신의 가슴 속 깊게 자리한 예술혼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시절에 그는 인근 무안군청이 있던 북교동 한 마을에 유명한 화가인 남농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수학을 한 그는 처음에는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본뜨면서 고집스럽게 혼자 그림공부를 했다. 그가 남농을 찾은 것은 20세가 돼서였다. 그에게 남농이 강조한 것은 답습이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개성이었다고 한다. 약 10년 동안 남종화(南宗畵)의 전통기법을 익힌 그는 국전에서 4·5·6·7회 특선을 기록함으로써 화단에 화려하게 데뷔한다. 아산은 남농의 기법을 배웠으면서도 스승의 기법과는 또 다른 남종화에 기분을 두면서 남도의 정서에 맞는 투박하고 거친 수묵화의 경지를 이끌어 자신 만의 독특한 수묵의 일가를 이뤘다. 국전과 전남도전에서 여러 차례 심사위원을 지냈고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국악 진흥을 위해 남도국

- 약력**
- ▲1926년 무안군 지도면 광정리 월산마을 출생
  - ▲국전(國展) 특선 연 4회(4·5·6·7회) 수상
  - ▲국전 추천·초대작가
  - ▲국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 보림문화 훈장 수상
  - ▲전남도 문화상·광주시 문화예술상 수상

약원을 설립하고, 제자 양성을 위해 목노회를 지었다. 특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1988년 자신이 평생 모은 소장 미술품 6천803점을 전남도에 기증하고, 더불어 자신 소유 토지(4천263평)를 옥과미술관 건립부지로 기증해 옥과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개인 창작 뿐만 아니라 미술문화계 발전과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탁월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유난스러울 정도로 역사식과 사회 참여식이 투철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80년 5·18민중항쟁 이후 그는 자신의 그림에 낙관을 찍을 때 수시로 아산(雅山)의 ‘雅’를 번여 리 아(亞)로 바꿔 사용했다. 수년 전 작품에도 아(亞)가 등장한다. 심지어 몇 개 작품에는 5·18의 뜻을 기려 낙관을 ‘五十八

日’로 찍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당시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가 상당 기간을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5·18 이후 27년 동안 광주와 전남을 단 한차례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의기와 참여의식은 나이와 무관하게 여전하다. 그는 2003년 5·18을 앞둔 5월14일 호남 학계·종교계 인사 121명이 발표한 정치개혁 선언에 참여한다.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은 “정치개혁을 뒤로 한 채 지역주의에 기대려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돈만 있으면 모두가 미치는 세상 나라 걱정하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북한 용천역 참사가 발생한 2004년에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전시회에 작품을 쾌척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사)서남해안포럼이 ‘한반도의 미래, 서남해안을 가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내걸기도 했다. 지역 발전사업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의도에서였다. “요즘에는 뭐든 돈이면 다야. 돈만 앞에 있으면 모두가 미치는 세상이 됐어. 뭐가 중요한 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국가를 위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스승의 날에 인터뷰를 한 탓에 그림 이야기 보다는 인생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 서산대사 “三災 들지 않는 곳”

육지가 바다로 향하니 해남은 땅 끝이 아니라 땅 머리다. 광주에서 한 시간 반 만에 옛 우슬치 밑 터널을 벗어나자 읍내다. 금강(미암)산이 병풍이 되어 시가지가 안 온다. 남쪽으로 녹우당을 거쳐 삼산면 구림리 옛 마진골 ‘장춘동(長春洞)’에 다다른다. 남쪽을 둘러친 ‘두륜산’이 울타리가 돼 북사면이 직권하다. 이 수세가 좋은 읍락지(盆地)에 한들절 대흥사가 위치한다. 차향 그윽한 선교양종의 대도량. 조선시대 13대 종사와 대강사를 배출한 곳.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1823년 유훈과 초의(草衣)선사가 폐년 대둔사를 펼쳤다. 신라 말엽 창건한 대둔사는 대흥사(大興寺)를 말하며 해남현 남쪽 20리 대둔산(大菴山) 속에 있다. 꼭대기는 날카로운 봉우리가 주뿔하고, 골짜기들은 사방을 에워싼 채 100리나 내리 뿔어 스스로가 한 판(肩)을 이루고 있으니 어느 산과 견줄 수 없다. 오른쪽은 가련봉(迦蓮峰·703m), 왼쪽은 두륜봉(頭輪峰·630m)이다. 낮은 곳에서 깊은 데로 모여든 물빛이 푸르고, 물보라를 일으켜 소리 내 흐르니 진실로 신선이 사는 절경이다. 절 앞으로 모여 북쪽으로 아홉 굽이를 이루고, 굽이마다 다리가 놓여



해탈문에서 바라본 대둔산과 대흥사.

있다. 초입에 50여기 부도와 14기 탑비가 발을 이루고 있다. 안쪽에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 부도가 있다. 대사는 대둔을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며,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불교사상과 정신의 중심이 될 곳”이라 했다. 표충사(表忠祠)는 정조대왕의 친필이다. 일지암(一枝庵)은 다성 초의선사(1786~1866)가 한국 차를 집대성한 동다송을 써내려,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펼 곳이다. 그는 다산 정약용, 혜장스님, 추사 김정희, 소치 허유 간을 연결하여 불·유교, 실학, 사상, 시·서·화, 차 문화를 꽃피웠다. 북미특암에는 바위에 양각된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 3층석탑(보물 제301호)이 있다. 대웅보전은 풍수지리사상의 정수탑에 조성했다고 한다. 탑산사 동종은 보물 제88호이고, 응진전 3층 석탑은 보물 제320호다. 천불전의 꽃창살무늬도 아름답다. 1979년 도립공원(33km)으로 지정된 두륜산 일대는 난대성 상록활엽수와 온대성 낙엽활엽수로 보아 식물학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집단시설지구에서 사찰까지 2.3km는 동백 숲 터널이다.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된 왕벚나무와 만일암 근처에는 키 22m 둘레 9.6m의 ‘천년수’ 느티나무가 서 있다. 정요수 이장에 따르면 만춘동 사하촌은 현재 92세대, 가계 50집, 여관 10집으로 산채비빔밥과 삼산막걸리가 소문났다. 성보박물관의 출퇴근 때마다 나타난 장끼인 ‘둔치(屯雉)’도 보았다. /김경수(사) 향토문화진흥원장

두엣

올봄 최고의 뮤지컬  
최정원 · 성기윤의

광주문화예술회관

5월 26일 (4시, 7시 30분), 27일 (3시, 6시 30분)

주최: **광주CBS** 주관: 예향미디어 **351-8300**

●예매처: 광주은행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g.co.kr  
인터파크(1544-1555) www.ticketpark.com